정직, 샘에 연결된 밑 빠진 독

(시편 112:1~10)

1.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정직, 샘에 연결된 밑 빠진 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정직, 샘에 연결된 밑 빠진 독'
정직하면 밑 빠진 독이 됩니다. 그런데 샘에 연결 되어 있는 밑 빠진 독입니다.

본문의 3절 5절 9절에 주의를 기울여봅니다.
3절에서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라는 말은 곧 부와 재물을 공의에 따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서는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의로 행한다.'라는 말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3절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던 두 구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감사의 양은 많아지고 기쁨의 양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커집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잘하면 할수록 도달해야 될 지점들의 형국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에 도달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명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유무상통'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면서 뇌리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있는 자가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고, 사도들은 그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무상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갖가지 사람들이 모인 지금의 교회 현실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진 베드로의 첫 설교의 내용의 골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드러낸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증거가 유무상통이었습니다.
결국 올바른 믿음이 지금은 새싹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단계가 된다면 유무상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제대로 된 구원의 확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무상통의 경지에 이르게 되더라도 내놓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져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합께 공존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정직'이라는 단어가 또 두려움을 가져다줍니다.
본문이 말하는 정직한 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정직하면 밑 빠진 독이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이나 사전적 정의로서의 정직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십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정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샤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취해야 하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정직할 경우에 뒤따르는 마음이 '경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맺고 나면 경외가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는 정직한 자를 밑 빠진 독이 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맺어져야 할 관계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점선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글씨본처럼 점선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 손으로 점선을 따라 실선을 긋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점선은 직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점선을 따라 하나님께 직선으로 감으로써, 점선을 직선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본 정직의 의미였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직선으로 도달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정직한 자가 마음을 직선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나타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내가 관계해야 할 대상들에 대한 점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뻗어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관계도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돈 자녀 건강 등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 모든 관계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선으로 이어진 대상들을 실선으로 연결해 가시는 모습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의 내용물을 전달하시는 모습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111편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정직의 한 측면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렇게 정직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통해 땅으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외(敬畏)란 무엇일까요?

경외의 사전적 의미는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경외의 대상입니다.

만약 돈 없는 것이 제일 두렵고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은 돈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가 확인시키는 것이 경외의 대상입니다. 나인성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자 나인성 과부는 살아갈 이유를 잃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외아들은 경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른 것은 없어도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경외가 정직함의 결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한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경외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정직한 자는 돈이나 자녀의 형통과 같은 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과 직선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경외함이 생겨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 자리에 처하셨을 때에 두려워하셨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라고 하셨던 이유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통이 아무리 고통스럽다하여도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면 이토록 처절한 절규를 하실 이유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리는 단순히 몸이 찢기고 못이 박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처한 저주의 자리로 외아들을 보내시기 위해,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내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까지 가셔야만 우리를 만나실 수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올라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토록 두려워하실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보낼 마음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는 정직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경외함이 생겨납니다. 돈이 없어도 되고, 건강이 안 좋아도 되고, 사업에 실패해도 되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도 좋고, 모든 모욕과 악담을 다 퍼부어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 받기를 자청합니다.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기뻐하실 지를 생각합니다.

정직으로 인해 주어진 이러한 경외의 상황이 밑 빠진 독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를 다시 연상해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와 연결된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직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돈이 남아도는 것이 되어 나와 관계된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5절의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라는 말씀처럼 주변에 돈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밑 빠진 독처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니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부자는 못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현실은 구원의 증거를 풍요와 다산으로 여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자되고 부흥하는 것을 올바른 구원의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얼마나 거꾸로 된 일입니까? 우리는 주관적 입장이나 처지에 의한 설교가 아닌 영적인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은 오히려 그를 영원히 가난하게 만들고 죽이는 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당사자도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사실만을 말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은 내 마음을 잡아끄는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돈은 좋지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이 될 수는 없으니 십자가에서 돈에 대해 죽습니다. 자녀도 소중하지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이 될 수는 없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녀에 대해서도 죽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려 보낸 정직한 마음이 되면 마음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바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밖에 있게 되면 세상의 가치들이 내게 있든 없든 개의치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돈을 모아서 재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조물주 되신 아버지는 수원지입니다. 이 수원지와 연결된 밑 빠진 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시는 대로 끊임없이 흘려보낼 뿐입니다.
수원지에서 처음 물을 퍼 올리는 파이프는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런데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끝없이 흘러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채움 거리로 삼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들은 주어져도 모아둘 필요 없으며 모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과 구원 받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유무상통은 두려운 일이지만 거기까지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며 부와 재물을 얻지 못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도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 상황 자체만으로 보면 부와 재물을 얻기는커녕 그나마 갖고 있던 집과 땅도 다 잃고 고향을 떠나서 전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와 재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히 중산층 이상의 부와 재물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마음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누가 십억을 거저 준다고 해도 그것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뭣 때문에 주는지 이유는 몰라도 일단 냉큼 받아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돈 자체가 잉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신 것도 지출을 한정지으신 것입니다. 몸의 지출은 하나님의 그리신 점선을 실선으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을 위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나를 위한 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로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돈들을 하나도 나를 위한 용도로 쓰지 못하는 바보들이 된다는데도 구원을 완성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몸 하나 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 하나조차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정직하심에 모범적 삶을 사시다보니 잉여물로 여기셨습니다. 잉여물인 몸 하나를 십자가에 드림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풍족함을 항상 누렸습니다. 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잉여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를 끌고 가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런 십자가 생활화를 계속해도 되겠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점을 이야기해 주어야만 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유무상통을 하는 밑 빠진 독이 될 것임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도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는 쓸 수 없는 마음상태가 될 텐데도 정말로 구원 받고 싶은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 생활화를 올 곧게 하여 정직하게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만 없어지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밑 빠진 독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볼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며 하나님만 가지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나 물질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영적 은혜들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주변이 옥토로 변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풍조는 이것과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풍요와 다산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여기는 상황에서는 내가 풍성해질수록 주변은 말라 죽습니다. 마치 대형교회만이 살아남고 주변의 작은 교회와 시골의 모든 교회들은 말라죽어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임의 모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유무상통을 하면 교회도 유무상통하는 것입니다. 풍족한 교회가 빈약한 교회로 보냄으로써 빈약한 교회가 없어야 합니다. 시골벽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을 모셔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자녀들도 철 따라 따듯한 옷은 입을 수 있고, 참고서를 사지 못해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요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한 사람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정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때에 내 주변부터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잡아끄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는 십자가 생활화에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밑 빠진 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이 나를 기준으로 흩어지며 주변이 옥토로 변하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이 임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